

¹¹Therefore, remember that formerly you who are Gentiles by birth and called "uncircumcised" by those who call themselves "the circumcision" (that done in the body by the hands of men)—

¹²remember that at that time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and foreigners to the covenants of the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¹³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through the blood of Christ.

¹⁴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¹⁵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law with it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out of the two, thus making peace, ¹⁶and in this 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¹⁷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away and peace to those who were near. ¹⁸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to the Father by one Spirit.

¹⁹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²⁰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²¹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²²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¹¹所以你们应当记念：你们从前按肉体是外邦人，是称为没受割礼的；这名原是那些凭人手在肉身上称为受割礼之人所起的。

¹²那时，你们与基督无关，在以色列国民以外，在所应许的诸约上是局外人，并且活在世上没有指望，没有神。

¹³你们从前远离神的人，如今却在基督耶稣里，靠着他的血，已经得亲近了。

¹⁴因他使我们和睦（原文作：因他是我们的和睦），将两下合而为一，拆毁了中间隔断的墙；

¹⁵而且以自己的身体废掉冤仇，就是那记在律法上的规条，为要将两下藉着自己造成一个新人，如此便成就了和睦。

¹⁶既在十字架上灭了冤仇，便藉这十字架使两下归为一体，与神和好了，

¹⁷并且来传和平的福音给你们远处的人，也给那近处的人。

¹⁸因为我们两下藉着他被一个圣灵所感，得以进到父面前。

¹⁹这样，你们不再作外人和客旅，是与圣徒同国，是神家里的人了；

²⁰并且被建造在使徒和先知的根基上，有基督耶稣自己为房角石，

²¹各（或作：全）房靠他联络得合式，渐渐成为主的圣殿。

²²你们也靠他同被建造，成为神藉着圣灵居住的所在。

¹¹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¹²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¹³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¹⁴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¹⁵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¹⁶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¹⁷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¹⁸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¹⁹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²⁰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²¹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²²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